

## 월요 광장

## 세월호, 5·18, 그리고 국가



**강 용 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지난 금요일 음악치유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모두 행복해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음악치유 프로그램은 5·18 생존자와 가족이 마음 속 상처를 노래에 실어 훨훨 날리는 자리입니다. 세월호에서 어린 학생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가 나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 5·18 유족들은 가슴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말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음악치유 노래 대신, 어린 생명들이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점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다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얘기 나눌 기력을 되찾았지요.

5·18 때 실종된 호영이 엄마 이근례씨(77)는 TV를 보며 내내 우셨답니다. 이 생 때 같은 학생들을 어쩔거나, 그 차운 바닷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시신이 바다에 떠내려가 훼손되거나 않을까.

2014년 세월호에 1980년 호영이가 겪쳐집니다. 열아홉 꽃다운 호영이는 1980년 5월 26일 남동생을 찾으러 집을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근례씨의 시계는 그날 이후 오월에 짹 험비었지요. 아들의 주검을 찾아 전국을 헤맸고, 어디서 유골 나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다 흐트라녔지요. 2001년, 망월동 무명열사묘에 묻혀 있던 호영이를 DNA 검사를 통해 찾았습니다.

하지만, 호영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34년이 지났지만 이근례씨는 아직도 호영이를 찾고 있습니다. 호영이를 찾았다면 그 마음으로 TV에 나오는 '실종자' 자막을 아프게 봅니다. 이근례씨는 진도에서 아태계 자식을 기다리는 세월호의 '실종자' 엄마가 되어 자지도 멎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새삼 국가란 무엇이고,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존 로크는 "국가권력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독일 에센(Eschede)역 열차사고는 부실한 열차점검과 차륜 손상 때문에 일어난 대형참사로, 무려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열차사고 추모 웹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절대 잊지 말 것!" 우리는 어떤가요. 대형참사마다 시스템 부재, 매뉴얼 부재라는 비판이 되풀이 됩니다.

수백 명을 태운 배가 기울어 갈 때 세월호에선 "기만하고 있으라"고 방송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기만하고 있으라"는 말에 따르기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물이 차오르기 전에 '일어서야' 합니다. 5·18 '행불자' 호영이와 세월호의 어린 희생자들, 그 아픔과 비극을 함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사, 고등학생 해병캠프사고, 경주리조트 불괴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반복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걸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대통령 바이초체커는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기억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것 이지요.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독일 에센(Eschede)역 열차사고는 부실한 열차점검과 차륜 손상 때문에 일어난 대형참사로, 무려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열차사고 추모 웹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절대 잊지 말 것!" 우리는 어떤가요. 대형참사마다 시스템 부재, 매뉴얼 부재라는 비판이 되풀이 됩니다.

수백 명을 태운 배가 기울어 갈 때 세월호에선 "실종자·탑승자·집계의 잊은 오류,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위기 대처능력 부실 등 종체적 무기력"을 드러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

## 社 說

## 안전불감에 무기력까지, 담담하고 비통하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국민들은 비통한 심경이다. 아직도 200여 명이나 실종 상태에 있지만 생존자는 찾지 못하고, 사망자만 간헐적으로 수습하고 있을 뿐이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의 가슴도 시기떻게 타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쓰는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1970년 남영호, 1993년 서해 헤리호 침몰사건을 겪고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목숨을 미처 살피우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는 대형 인명사고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일어나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구호가 허연임을 드러냈다.

전형적인 후진국 형 사고로 드러난 대참사,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원칙이 무너져 슬픔이 반복되는 이 현실, 이 나라가 안타까울 때 때문이다.

물고도 가장 먼저 구조선에 오르는 가증스런 작태를 보였다. 비정한 유언비어마저 나돌아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단답함을 넘어 화가 치민다.

대한민국이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쓰는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1970년 남영호, 1993년 서해 헤리호 침몰사건을 겪고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목숨을 미처 살피우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는 대형 인명사고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일어나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구호가 허연임을 드러냈다.

우리가 첨단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지만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미끼' 수준이다.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대책 없이 우왕좌왕으로 일관하면서 실종자·탑승자·집계의 잊은 오류,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위기 대처능력 부실 등 종체적 무기력을 드러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 승무원들은 승객을 죽음과 실종으로 내

결국 인재로 드러난 세월호 침몰 대참사  
(人災)

안전불감증, 무기력한 재난 위기 대처에 사양을 불렀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 침담하게 하는 것은 어이없는 사고 당시와 전후의 상황이다. 조사하면 할 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 참사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

특히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체적 문제점은 반드시 밝혀내 엄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선령(船齡)이 20년 된 배를 무리하게 구조 변경했는데도 어떻게 안전검사에 통과했는지, 구조명 46척 중 작동은 1척뿐인데도 출항 전 점검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차량 180대와 컨테이너 화물 115t를 실은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고정도 하지 않아 배가 놀리는 데 한 끝을 했다.

세월호가 급회전한 것이 어떠한 요인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정황상 여객선과 선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승객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비이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가간, 조직이건 진짜 능력은 비상 시에 드러나는 법이다.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조에 총력을 쏟아, 이와 병행해 잘못된 시스템은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후진국형 참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 無 等 鼓

선장은 유사시 승객의 안전과 구조에 책임을 다할 때 명예를 얻게 된다.

위기의 순간, 명예를 얻은 선장의 전형은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에서 침몰해 1513명이 숨진 죄악의 참사였다. 탑승객 2224명 중 710명이 구조되었으나 구조율은 32%로 세월호의 구조율은 36.5%와 별 차이가 없다.

그 이면에는 마지막까지 승객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배와 운명을 같이 한 스미스 선장의 희생이 있었

다.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자와 어린 이를 먼저 구해 유람선

사고 사상 여성(70%)과 어린이(50%)

를 가장 많이 살린 선장으로 기록됐다.

스미스같은 선장은 국내에도 있었다. 1993년 10월 10일 부안에서 발생한 서해 헤리호의 백운두 선장이다. 그는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흔쾌히 출해 인근 섬이나 물으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조 작업에 나섰던 민간 인이나 생존자 중 누구도 배에서 그를 보지 못했고, 사고 직후 항구에서 백운두 선장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더해져 검찰이 지명수배하는 촉각을 벌였다.

하지만 백운두 선장은 사고 당시에

공분(公憤)을 사기로 충분하다.

2년 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때 가장 먼저 도망쳤던 프란체스코 세티노 선장은 연상시킨다. 그는 승객을 버린 죄로 1인당 8년씩 2697년 형을 구형받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를 찾기 마련이다.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침몰하는 리더십을 보는 듯해 슬프다.

/정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 법조칼럼

## 시청앞 평화공원에서 되새기는 평화

## 송지현

변호사·문학박사  
송지현

지난 2월초, 사무실을 상무지구 가정법원 근처로 이전하였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시청 청사와 평화공원이 바로 보이는 덕분에 사무실에 들어서면 일단 기분이 좋다. 이 사무실에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상담을 하며,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하거나 서면을 작성한다.

그러나 간간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면, 평화공원 벤치에 젊은 남녀가 다정히 앉아 진한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며, 또 어느 날은 대학시절 상당기간 동안 거의 매일 들었던 운동가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한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몇 사람씩

무리를 지어 공원 산책을 즐기며 담소하기도 한다. 참으로 고마운 공간이다.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을 하러 갔다 위자료 액수 등 의견이 달라 싸움만 하고 신청은 무산되어 지친 심신을 이끌고 씩씩대며 공원을 건너 우리 사무실로 오게 하는 징검다리기도 하다.

평화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행복과 가까운 단어이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은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환경적·기질적으로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일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주위의 공격과 비난과 분쟁을 스스로 막아내고 타루어만 평화를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후자그룹의 사람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생각하는 평화는 분쟁과 갈등 후의 평화이다.

몇 달 전, 한 여자분이 찾아와 협의이혼 후 아들을 헌자 양육하고 있는데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아빠를 찾아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셨다. 아빠와는 연락이 두절된 지 13년도 넘었고 우연히 한 번 길에서 보았을 뿐 사는 곳도 하는 일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사정이 딱해 보여 실비의

점은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양육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제 혼자나 아니고 있으니 앞으로 조금씩 주겠다고 사과했다. 소식 없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날려 소식을 알게 되고 기꺼이 이해해 줄 마음이 생겼으니, 싸움을 끌어 평화를 얻은 셈이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가서 조정에 참석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폭력을 피해 피신하고 별거한 지 30여년이 되었지만 남편은 이혼을 못해주겠다 한다. 딸이 장성해 결혼까지 했고, 평생 미지급한 양육비 면제까지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심사인가. 그동안 별거상태였으나 현상적 평화는 유지된 셈이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서류정리를 하는 터이니 가서 잘 설득해봐야겠다.

때로는 인내와 양보로 평화를 찾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

평화를 끌어올 수도 있다. 지금이 어떻게 해야 할 때인지, 어느 것이 내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평생 후회가 없을지는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스스로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 다음날 오전, 그의뢰인이 행복한 목소리로 전화해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니 소를 취해 달라고 했다. 사연이 즉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들을 외면한 전남편에게 미움만 가득했는데 그날 양육비청구를 계기로 찾아온 그와 한 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며 어렵게 살다가 이제야 재회하고 안

## 기고

## 불의에 항거한 광주 3대 민중항쟁과 4·19 역사

## 이병렬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광주는 독특한 의향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광주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이조시대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도호란, 병자호란 등 외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고비고비마다 호남과 광주, 의병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중심에서 서 나라를 지키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1799년(정조23년) 호남절의록과 광주전남총의사록에 전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1593년(선조26년) 7월 16일 이순신 장군이 사헌부 협력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호남 의병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질상호남국가지보장(竊想湖南國家之保障)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훈자서 생각해 보니 호남은 나라의 율타리요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을 것인가?' 특히 광주는 선열들의 의정신을 이어져 불의에 항거한 광주 3대 민중항쟁의 역사가 있다.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1960년 광주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다.

광주 3대 민중항쟁 역사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광주민의 역사로 광주는 의향의 고장이고 민주화의 도시이다. 광주 3대 민중항쟁의 역사에는 광주정신과 광주정체성의 산실로 광주는 정의의 DNA가 살아 숨쉬는 의로운 땅의 향이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임을 3대 역사로 입증하고 있다.

4·19 역사의 시원지가 광주 3·15의 거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광주 시민은 극히 드물다. 광주 3·15의 거와 광주 4·19 역사는

당원이 부정선거 배제로로 군중과 합세하여 1시간 30분 동안 시위를 하고, 7시 30분에는 수천의 군중 대모대와 경찰이 충돌해 총격 및 투석전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때 행방불명된 김주열군의 시체가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됐다. 전 국민들의 흥분은 극에 달하였으며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전국으로 확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시작이 있듯이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광주는 마산보다 3시간 앞서 4·19 혁명의 뇌관에